

철은 공업의 쌀이다

포항종합제철 제4기설비 및 850만톤 종합준공식 치사

1981년 2월 18일

박태준 사장을 비롯한 포항제철 임직원 여러분!
국내외 관련업체 근로자, 기술진, 기업인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본인은 오늘 포항종합제철의 제4기 확장사업이 준공되어 연간 850만톤 규모의 조강생산체제를 완성하게 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1970년 봄 제1기 설비공사에 착수하던 당시 모래만 훑날리던 바닷가 허허벌판이 이제는 80여개의 공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세계 굴지의 종합제철소로 변모하였습니다.

4단계사업을 추진해 온 지난 11년간 이 사업에 투입된 공사비는 내외자 합쳐 1조 9천억원이며, 동원된 연인원이 1천 9백만명으로 단일사업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의 역사였습니다.

제4고로의 화입으로 포항종합제철은 이제 세계를 통틀어 제11위의 현대적인 대형제철소로 부상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8백 50만톤 규모 이상의 제철소를 보유한 네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포항종합제철의 건설은 실로 우리 나라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보여 주는 상징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불굴의 의지와 저력을 내외에 확인시켜 준 일대 장거라 하겠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은 이번 제4기 사업을 10개월 앞당겨 완공한 것을 비롯하여 4단계 공사를 거치는 동안 모두 17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건설비와 제품원가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공사기간과 저렴한 건설단가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오랜 역사와 경험을 쌓아온 선진철강공업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공장가동 초기부터 설비능력을 웃도는 생산 실적을 올리는 한편 우수한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공급하면서도 흑자경영을 이룩하여 그간 소요된 내자 8천 8백여억원의 75%에 해당하는 6천6백억원을 자체 조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빛나는 성과와 업적은 우리 나라 철강인들의 단결된 힘과 헌신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인 포항제철 임직원과 건설역군 여러분에게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포항종합제철의 완공으로 우리 나라는 이제 철강재의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외수출도 점차 늘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계류의 국산화촉진, 방위산업의 성장등에 따라 철강수요가 계속 증대되어 수년 내에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입

니다.

한편 세계각국은 장기화된 경제불황과 자원확보 경쟁으로 저성장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철강 공업에 대한 설비투자가 부진하여 멀지않아 세계적으로 철강의 수요불균형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해 할 수는 없으며, 철강 공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대형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자원과 고도의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어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간산업 중의 기간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은 「공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지듯이 기계·금속·조선·자동차·건설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가 되고 있으며,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북한공산집단의 끊임없는 무력도발 위협에 대처하여 자주국방력을 증강해야 할 우리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방위산업 건설의 토대가 되는 철강산업은 우리의 생존권 확보와도 직결되는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철강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2제철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인 바, 우리는 그간 난관을 겪으며 축적해 온 기술과 경험을 십 이분 활용하여 더욱 훌륭한 공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로 선정된 포항제철의 임직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것과 다름없는 제1기 공사 때의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의를 되살려 제2공장의 건설에 힘써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하여 제2제철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날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바 복지사회의 기틀이 더욱 확고히 다져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그간 제4기사업의 완수에 공로를 세워 오늘 표창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포항제철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및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